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0, Vol. 24, No. 2, 1~25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홍기원 **이종택†**
호서대학교 **동양미래대학**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이념적 지형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많이 연구 되어 왔으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그러한 이념적 지형의 뒤에 있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과 천안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Duckitt, Birum, Wanger, 및 Plessic(2002)이 제안한 이념적 태도와 성격변인들을 재는 질문지에 응답하게 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자가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에 대한 지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별로 다르게 나왔다. 서구인들은 연령과 무관하게 진보-보수의 이념적 분리가 강하여 연령에 따른 보수화가 낮은데 비하여 한국의 성인 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이념적 분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념적 지형에 깔려있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익 권위주의, 사회적 지배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들(RWA, SDO), 두 가지 세계관(위험한 세계관, 경쟁적 세계관), 세 가지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북한, 부자, 기업인)들 간의 경로계수들의 결과, 한국 성인들의 이념적 지형은 이들 성격들, 세계관들로 잘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 성인들의 보수성은 사회적 지배성보다는 우익 권위주의로 더 잘 예언할 수 있으며, 서구 사회에서처럼 강한 이념적 지향을 경험한 결과로 우익 권위주의로부터 사회적 지배성으로의 경로도 확인되어,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을 중심으로 한 이중과정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주요어 : 이념적 지형, 진보와 보수, 심리적 요인, 우익 권위주의, 사회적 지배성

최근 한국에서는 지난 10여 년 간의 진보정권 이후에 새로운 보수정권이 출범하여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나간 10여 년 간을 잃어버린 세월로 간주하고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시도하는 보수 정권에 맞서 전직 대통령의 자살을 계기로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치적 진보-보수의 갈등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는 일천한 상태에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도 진보와 보수는 단일 차원 상의 양극이라기보다는 이원론 내지는 분야별 진보와 보수가 상이한 입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강원택, 2003; 마인섭, 2002). 더구나 진보와 보수의 지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주 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 이 논문은 2008년 호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2009-0025). 이 논문을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념적 지형을 측정할 도구 개발에 도움을 주신 한영석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이종택, (152-7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160, 동양미래대학 교양과, 전화: 02-2610-1872,
E-mail: jtyi@dreamwiz.com

www.kci.go.kr

있다(위클리 경향, 2009).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진보와 보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Greenberg & Jonas, 2003; Tomkins, 1963). 그런데, 정치적 진보-보수주의에 대응하는 심리적 진보-보수주의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정형화된 진보-보수의 특징을 찾기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안정된 심리적 특징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Mehrabian, 1996; 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a, 2003b; Jost, Nosek, & Gosling, 2008). 현재 한국인의 진보-보수에 대한 심리학적 실증적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이념적 지형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임의 표집을 통한 이념적 지형 실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1

한국정치에 있어서 근대적 정치이념이란 외생적인 것으로 수입하여 주어진 것이었으므로 이념에 대한 국민의 무지와 잘못된 이해 그리고 잘못된 적용, 수행 등으로 수많은 정치적 변동과 파행을 거듭해 왔다. 최근 한국정치에서의 이념적 상황의 변화와 전개는 정치사회적 이슈로서 상당한 논란과 갈등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소위 이념갈등으로 보도되는 보수-진보 간의 갈등 또는 남남갈등 등이 그 한 예이다. 이념적 혼란은 정치사회적으로 갈등과 파행을 야기하고 증폭시키며 장기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막대한 국가적 혼란과 비용의 대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와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 과거의 태도이거나 변화된 태도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므로 어떠한 정책이나 의견이 갖는 이념적 측면과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한국정치에서의 이념적 지형을 분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분석 수준은 정책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또는 의식의 차원이다. 그것은 정책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이념이나 태도를 반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한국정치에서의 정책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이념이나 태도의 하위분석 수준이 되며 이념적 지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분석단위가 된다. 그러므로 한국정치에서의 이념적 지형은 한국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념들과 보수, 진보라는 태도가 정치주체들의 정책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또는 의식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 바꿔 말하면 정치주체들의 정책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의식 등은 어떠한 이념이나 태도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노병만, 2007).

한국 정치에서 민주화 이후에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나 태도를 이념적 차원에서 보수-진보의 이념적 차이로 승화시켜 간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첫째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책들에서 나타난 의견이나 태도의 차이를 이념의 차이라고 보는 것은 과잉 단순화의 결과이다. 의견이나 태도가 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념이나 논리의 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견이나 태도의 차이를 이념의 차이라는 개념으로 단정을 지어 사용하는 것은 무리한 용어의 사용이 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보수- 진보의 서로 다른 의견이나 태도의 차이를 이념의 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로 문제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의 서로 다른 차이를 보수와 진보의 차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무엇이 보수이고 진보인가 하는 점이다. 보통 보수 - 진보라는 관념이 갖는 보편적인 특성은 결국 기존의 질서나 사회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인가 아니면 기존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의 수용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파악한다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구체적인 현실사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규정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것은 각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으며, 사회가 갖는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서로 달리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영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매우 논쟁적이기도 하다(노병만, 2007).

www.kci.go.kr

셋째는 보수-진보의 구분은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영역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 단체, 집단, 국민 등 어떠한 정치주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에서 모든 정책에 대하여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일 수도 있겠지만 영역과 정책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정치 주체가 사회 영역에 따라 또는 정책에 따라 보수-진보 입장을 서로 달리 갖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럴 경우 하나의 정치 주체가 보수- 진보의 입장을 모두 갖게 되는데, 이때 그러한 정치 주체에 대하여 보수-진보의 개념설정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수- 진보의 개념구분이라는 것이 이념이기보다는 정책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또는 태도 수준의 개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정치의 민주화 이후 보수- 진보의 개념사용은 매우 오용되어 왔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견의 차이이거나 얼마간은 태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문제를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거나 이념적 차이라고 성급한 판단을 하여 이념갈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노병만, 2007). 최근 한국사회의 정치주체들에 대한 이념성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강원택(2003)은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블루칼라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또 그것은 정치영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사회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경제영역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이러한 이념성향은 계층에 따른 차이가 분명한 서구의 경우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특히 계급이나 경제적 가치의 배분에 따라 이념적 갈등이 나타나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이념성향이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특성이다(강원택, 2005). 왜 그런가에 대하여 경험적 분석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는 본 논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이유는 우선 한국의 국가과제나 문제점을 많이 알고 보다 잘 인식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보다 개혁을 선호하는 고학력층, 화이트칼라, 젊은 층, 고소득층을 진보성향으로 분석하고, 그런 문제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인식이 부족한 저 학력층, 블루칼라, 노년층, 저소득층은 보수 성향으로 분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조사는 이념성향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조사된 것은 개혁정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경험적 조사는 개혁정책에 대하여 많이 아는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서 개혁에 대한 의견수준을 분석한 것이며 그것을 보수- 진보의 이념성향으로 치환하여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개혁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응답자 나름대로의 판단을 묻는 것은 그것이 응답자의 특성이나 성향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응답자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한국의 이념성향은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나 서구는 이념성향이 계급이나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다시 한국의 연령 간 이념성향의 차이라는 것이 이념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다. 즉 이념의 차이라는 것은 이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급이나 계층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지 연령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라 이념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념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연령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나 태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강원택의 연구와 동일한 조사를 수행한 장훈(2003)은 남북문제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의 구조가 이념적 거리에 있어서 여야 정당지지자 간에 다른 어느 이슈보다도 좁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북문제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의견수렴을 보이고 있으며 수렴의 방향도 매우 중도적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 김태현과 남궁곤(2001)도 남북문제에 있어 분명하게 보수적, 현실주의적 또는 진보적, 민족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대다수의 시민은 두 입장 사이의 중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의 대립은 보수- 진보라는 이념이나 태도 또는 성향의 대립이기보다는 의견의 대립이며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인식 간의 대립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대북관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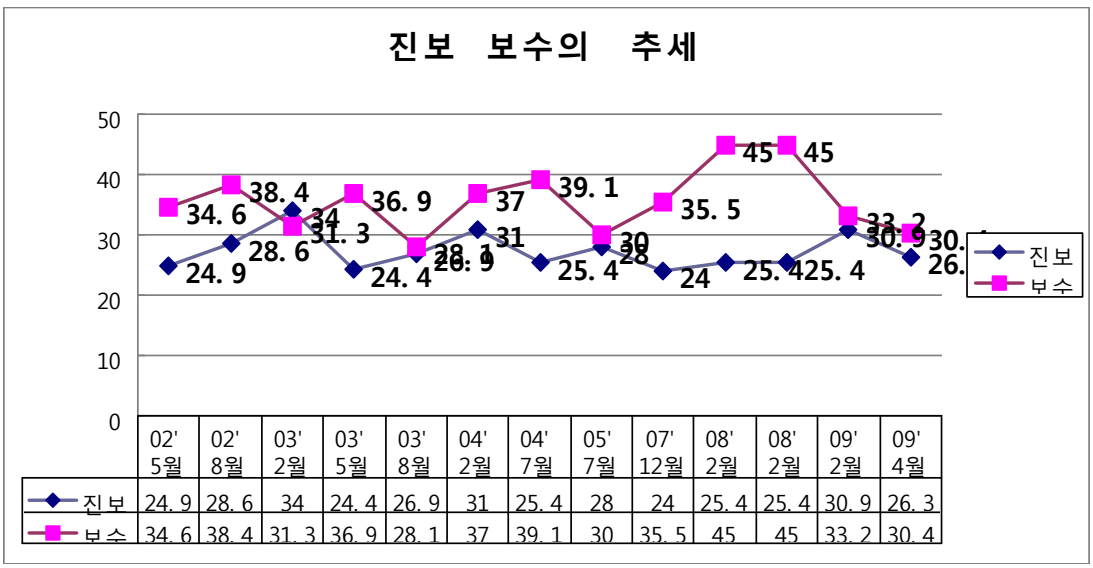
www.kci.go.kr

즉 대미관계를 보는 시각, 국가 보안법 개폐문제, 대북 지원문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여부 등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갖는다고 하여 그것을 보수나 진보라고 규정하여 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친미반북을 보수라 하고 반미친북이나 친중을 진보라 할 수 없으며,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진보라 하며 반대한다고 보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국가보안법 개폐를 지지하면 진보이고 반대하면 보수라 할 수 없고, 이는 대북지원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보인 조사연구를 개관하기로 한다.

이념적 지형의 조사연구

2002년 이후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출렁거렸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 4월까지 부정기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이념지형의 변화를 정리할 수 있으며, 2002년 대통령선거-2004년 초 탄핵-2004년 4월 총선-2005년 이후 참여정부의 인기 하락-2006년 지자체 선거-2007년 12월 대통령선거-2008년 총선-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 등을 변환점으로 보수·진보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오르거나 내리는 변화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이 탄탄대로를 달릴 때는 진보를 택한 응답자가 많았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보수를 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최근 조사에서도 진보는 하강하는 국면을 보였다. 보수·진보가 서로 엇갈리면서 춤을 춘 여론조사의 곡선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만든 파도였다고 할 수 있다(위클리 경향, 2009).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2003년 2월 조사에서 진보는 응답자의 34%였다. 응답자의 34%가 자신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것이다. 이에 반해 보수는 31.3%였다.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보수라고 생각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2002년 5월과 8월 조사에서 진보 대 보수가 24.9:34.6(%), 28.6:38.4(%)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노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보수가 10% 이상 많던 이념 지형이 뒤집혔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진보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2003년 5월과 8월 조사에서 진보 대 보수는 24.4 대 36.9(%), 26.9 대 28.1(%)이었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 당선한 노 전 대통령은 대북 특검 문제로 여당인 민주당 주류와 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이 맞붙으며 분당 논란이 일었다. 참신한



	02' 5월	02' 8월	03' 2월	03' 5월	03' 8월	04' 2월	04' 7월	05' 7월	07' 12월	08' 2월	08' 2월	09' 2월	09' 4월
진보	24. 9	28. 6	34	24. 4	26. 9	31	25. 4	28	24	25. 4	25. 4	30. 9	26. 3
보수	34. 6	38. 4	31. 3	36. 9	28. 1	37	39. 1	30	35. 5	45	45	33. 2	30. 4

그림 1. 최근 7년 간 진보-보수 변화 추세

www.kci.go.kr

개혁 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여론조사에는 진보에 대한 냉랭한 시각이 투영됐다. 2003년 11월 결국 민주당은 분당됐고 열린 우리당이 창당됐다.

2004년에도 정국은 노 전 대통령을 핵으로 한 차례 돌풍을 맞이했다. 노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탄핵 전야였던 2004년 2월에는 진보와 보수가 각각 4.1%, 8.9%가 증가되어 중도가 얇아지고 양극에 더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진보 대 보수가 31.0 대 37.0(%)로 바뀌었다. 이전 조사에서 41.1%였던 중도는 30.0%로 뚝 떨어졌다. 중도가 진보로 이동해 이념 성향이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2004년 4월 총선에서는 열린 우리당이 압승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하면서 진보는 대약진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연구원이 7월 조사한 이념 성향 조사에 따르면 진보 대 보수의 성향은 25.4 대 39.1(%)다. 진보가 대폭 줄어든 반면, 보수는 크게 늘어났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정원칠 수석연구원은 “당시 조사는 총선과 3개월 정도 시간차가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며 “이때에는 총선에서 진보 세력으로 쏠린 것에 대한 반발과 균형심리로 이념 성향은 다시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게다가 총선 이후 탄핵유도설이 유포되면서 보수가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말했다.

이때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인기와 국정지지도는 서서히 하강세를 탔다. 노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열린 우리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번번이 패했다. 노 전 대통령은 급기야 2005년 7월께 대연정 카드를 꺼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당시 진보는 28%대에 머물렀고 보수는 30%대 중반으로 고공 행진하였다.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열린 우리당은 참패했다. 참여정부의 말기에 이르러 노 전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가혹해졌다.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수는 상승 곡선을 탔으며, 반면 진보는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2007년 12월 조사에서 진보는 24%인 데 반해, 보수는 35.5%에 달했다. 대선이 끝난 후인 2008년 2월의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진보 대 보수는 25.4 대 45(%)로 무려 보수가 진보의 2배까지 다가갔다. 참여정부에 대한 실패 평가로 인해 수장이었던 노 전 대통령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이념지형도였다. 정 수석연구원은 “이념 성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념 성향이 현 정부와 국정 지지도가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정부일 때는 비판적인 성향이 보수로 나타나고 긍정적인 성향이 진보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 정부에 대한 비판적 성향이 진보로, 긍정적인 성향이 보수로 바뀌었다. 2009년 2월 조사는 1년 전인 2008년 2월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를 보였다. 그 전해인 2008년 소위 수입소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등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수치로 나타났다. 진보는 25.4%에서 30.9%로 크게 늘어났고, 보수는 45%에서 33.2%로 크게 줄었다. 이런 과정에서 29.1%에 불과했던 중도층은 35.8%로 크게 늘었다. 오른쪽으로 향했던 이념 지향이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4월 조사에서는 2월 조사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됐다. 회복세를 보였던 진보 응답층이 26.3%로 다소 줄어들었고, 보수 역시 30.4%로 줄어들었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진보 세력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졌으며, 이런 실망감은 보수 세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신 중도는 40%대로 늘어났다.

위에서 보듯, 한국에서의 이념적 지형의 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아주 큰 폭으로 변동해 왔으며, 서구에서 구분한 진보와 보수의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총체적인 변화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요인을 다룬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념적 지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에서 서울과 호남 등 일부 지역의 414명을 대상으로 한 진보-보수 태도에 관한 연구가 최초의 연구로 알려져 있다(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및 한규석, 1990).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지역의 임의 표집을 통하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보-보수의 하위 차원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와 사회질서, 사회체제, 사

www.kci.go.kr

회운동, 경제적 분배, 문화적 전통의 5개의 하위 요인들을 밝혀내고, 응답자들을 진보주의자, 비판적 현실론자, 자유 민주주의자, 보수주의자 등 4개의 성격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집단은 진보성향을 전문/관리직은 보수성을 보였고, 진보나 보수 모두 국가와 사회질서, 문화전통에 대하여 찬성을, 사회운동과 경제적 분배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띤 사회체제와 사회운동, 보수성을 띠는 경제적 분배와 문화적 전통이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는 Kerlinger(1984)가 말한 진보-보수의 이원적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에 특유한 한국사회 상황에서 제한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조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진보-보수는 시간적 흐름과 상황적 변화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동안 한국사회는 극단적 우파정권으로부터 좌 편향된 정권으로의 교체가 있었던 만큼 상대적인 이념의 부침이 상정된다. 실제로 2000년대에 실시된 한 연구(마인섭, 2002)에서는 한국에서의 진보와 보수가 균형적인 분포를 보이고(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21.4% 대 28.5%)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연령이 후보지지와 관련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학력일수록 더 진보 지지를 보였으며, 젊은 층일수록 더 많은 진보 지지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보수적 정책을 선호하리라고 추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흥미 있는 의외의 결과이다. 고소득층은 대체로 경제적 기득권층으로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국유화보다는 민영화를, 증세보다는 감세를 더 선호하리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학력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리로 보수적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을 보여서 특이한 결과이다(마인섭, 2002). 다만, 한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진보주의자일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여성의 경우 부모나 자신의 진보적인 관점 덕분에 고학력자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실시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이념의 양극화가 더 심화됨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은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는 더 보수적이 되었고, 경제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인 성향으로의 이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정치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더 축소를 지지하였고, 사회분야인 “나이든 사람에 대한 존경”은 더 증가되어 보수적인 회귀를 보였으나, 경제 분야인 “토지소유 상한제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더 지지가 많아져 진보 쪽으로의 방향이 계속되었다(조선일보, 한국갤럽, 2006). 정권교체가 일어난 2007년 이후 이념적 지형은 또 바뀌었다. 한겨레 조사는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가 큰 폭으로 줄고,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늘어난 것을 두고 ‘민심의 대변화’ 혹은 ‘보수화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한겨레의 국민이념 성향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평균 이념값을 구한 결과, 지난 2004년 조사 때는 2.92였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3.1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는 중도 이념성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응답자들은 ‘나이와 교육수준’에 따라 이념성향과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지표를 토대로 이념 성향을 확인해봤더니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이었고, 고연령·저학력일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전반적인 보수화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방향성은 보수화의 조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사회가 이미 보수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경제 상황과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 이런 기류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사회·정치 분야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선호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흐름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나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 경제성장에 대한 바람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진보나 보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2008.1.1).

위에서 보듯 1990, 2002, 2006, 2007년의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될 고학력자들이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등 일부 인구학적 하위 영역별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진보-보수와 연결된 심리학적인 변인들이 탐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성격의 5요인 이론 상 진보는 높은 경험에의

www.kci.go.kr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s)과 보수는 높은 성실성(conscientiousness)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Jost, 2006). 또한 보주의자들은 외국의 음식, 영화 같은 색다른 경험, 시나 재즈 음악과 같은 예술적 표현들을 더 평가한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무신론, 길거리의 사람, 문신과 같은 반문화적 신체 표현을 옹호하고, 성, 관능, 기분 전환 용 약물 같은 쾌락 추구도 더 지지한다고 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결혼하고 아이 갖기, 스포츠, 낚시, 신문 읽기, TV 시청하기와 같은 주류적 활동을 더 선택하였고, 자신들의 부모를 더 인정하였다. 이들은 기도와 같은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도 더 높은 헌신을 보였다고 하였다(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a, 2003b).

위에서 보듯이 한국인의 이념적 지형은 변화가 있지만 특정한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서 그 변화의 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이 올라갈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블루칼라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지, 또 그것은 정치영역, 경제적 영역,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이러한 이념성향은 계층에 따른 차이가 분명한 서구의 경우와는 확연히 대비되어 계급이나 경제적 가치의 배분에 따라 이념적 갈등이 나타나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이념성향이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개방적인 성향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어 단순히 혜택을 받은 집단이라고 스스로를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상당히 진보적일 가능성이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남성위주의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에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여러 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진보적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은 남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지도 관심거리이다. 분석 1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보인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이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가설 2: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일수록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분야별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다르게 나올 것이다.

가설 4: 서구와 달리 진보 보수의 차이는 계층보다는 연령에 따라 두드러질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및 절차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중에서 임의로 500명을 표집하였다. 참가자들은 2009년 5월 15부터 6월 11일 사이에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중인 학생들이 설문 면접조사를 통한 가산점 취득 조건으로 대상자들을 직접 면접하고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남자 238명(47.6%)과 여자 262명(52.5%)이었고,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35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217명(43.5%), 40대 이상이 282명(56.5%)이었다. 교육 수준별로는 전문대 이하가 239명(48%), 4년제 대학 이상이 259명(52.0%)이었으며, 경제적 수준 및 기타 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왔다.

측정도구

참가자들에게는 8쪽으로 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Duckitt 등(2002)이 우익 권위주의와 사회적 지배성에 따른 내외집단에 대한 편견간의 인과적 모형을 검증한데 쓰인 6개 하위 척도들과 사회적 이슈들을 포함하였다. 즉, 내외집단 간의 편견 기제로 알려진 사회적 동조성, 완고성, 위험한 세계관, 경쟁적 세계관, 우익 권위주의, 사회적 지배성의 하위 척도들과 북한에 대한 태도, 기업인에 대한 태도, 부자에 대한 태도,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진보와 보수 정도를 재는 문항들이 사회적 이슈라는 제목 하에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변덕스러운 등 사회적 동조성을

www.kci.go.kr

표 1. 인구학적 변인 빈도표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238	47.6
	여	262	52.4
연령	20-29	47	9.4
	30-39	170	34.0
	40-49	175	35.0
	50 이상	107	21.6
종교	불교	79	15.8
	개신교	107	21.8
	카톨릭	92	18.4
	무교/기타	218	43.6
건강	질병치료중	19	3.8
	다소 불편	39	7.8
	보통 건강	293	58.6
	아주 건강	149	29.8
경제 수준	하류	134	26.8
	중류	276	55.2
	상류	89	17.8
결혼상태	미혼	131	26.2
	기혼/동거	354	70.8
	이혼/별거/사별	15	3.0
행복 수준	아주 행복	52	10.4
	행복한 편	413	82.6
	불행한 편	27	5.4
	아주 불행한 편	6	1.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34	26.8
	전문대 졸	107	21.4
	대졸(재학 중)	213	42.6
	대학원 이상	45	9.0
직업	학생	42	8.4
	자영업	104	20.8
	영업직	34	6.8
	사무직	103	20.6
	생산직	29	5.8
	전문직	68	13.6
	시간제	16	3.2
	무직	31	6.2
	기타	71	14.2
진보-보수 성향	진보적	198	39.6
	중도적	109	21.8
	보수적	193	38.6

묻는 14개 문항, 냉정한, 완고한 등 완고성을 재는 23개 문항, 위험한 세상을 지각하는 정도인 “요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하고 무질서하게 변하고 있다” 등 5개 문항, 경쟁적 세계관을 읽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www.kci.go.kr

냉혹한 방법이라도 쓸 필요가 있다” 등 20개 문항, “ 여성들은 사회적 관습과 과거 전통적 여성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 우익 권위주의(RWA)를 재는 16개 문항,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등 사회적 지배성(SDO)을 재는 6개 문항, 북한에 대한 태도를 재는 8개 문항, 부자에 대한 태도를 재는 8개 문항, 기업인에 대한 태도를 묻는 8개 문항, 라이프 스타일을 재는 12개 문항,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FTA 등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회적 이슈를 재는 5개 문항을 포함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척도는 7점 또는 8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동조를 측정하는 척도의 경우에 “아래의 각 특성이 귀하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V표 해 주세요”라는 지시문을 제공하고 “반항하는” 등의 형용사 문항에 7점 척도로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위험한 세계관 척도에서는 “요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무질서하게 변하고 있다”는 등의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체크하게 하였다. 보수주의 척도의 경우에 “여성들은 사회적 관습과 과거 전통적인 여성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문항에 “매우 강하게 부정” 또는 “매우 강하게 긍정”으로 구성된 8점 척도에 체크하게 하였다. 북한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는 “대북정책으로서 햇볕정책이 옳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에 7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일부 문항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 연구자들이 보충하였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자신의 성별, 경제적 수준, 교육적 수준, 건강 수준, 직업과 건강, 자신이 지각한 진보-보수의 위치 등을 포함한 인구학적 문항에도 응답하게 하였다.

결 과

측정도구의 타당성

RWA 척도에서는 .83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알파)를 SDO 척도에서는 .74의 신뢰도 계수를 얻었으며, 사회적 이슈를 묻는 척도 중 북한에 대한 척도는 .75, 부자에 대한 척도는 .85, 기업가에 대한 척도는 .85, 라이프 스타일 척도는 .85로 나왔고, 동조 문항은 .65, 완고성 문항은 .92, 위험한 세계관은 .83, 경쟁적 세계관은 .80을 얻었다.

주요 변인에 따른 차이

성별

남녀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지배적이며, 부자에 대하여 더 호의적이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더 완고했고, 보수적이었으며, 세상을 더욱 경쟁적으로 지각하는 편이었다. 남자들은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무력 사용을 더 옹호했으며, 비평준화, 자유무역, 무신론 지지, 취미활동, 효도 및 전통 보존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여성들은 더 종교적이었고 외국 영화나 음식을 좋아하는 쪽이었다. 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남녀 성향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여성들은 더 종교적이긴 하지만 전통이나 효 사상에 관해서는 반보수적이었다. 이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보수적일 것일 것이라는 가설 1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의 특성상 여성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진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어쨌든 이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수동적이고 보수적일지도 모른다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실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

40대 미만과 40대 이상 간에는 확연한 세대 차이가 존재하였다. 40대 미만이 훨씬 개방적이어서 외국 영화나 음식을 더 좋아했으며, 무신론을 지지하고 취미활동을 즐기며, 특히 문신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비하여 40대 이상은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대단히 보수적이었다. 4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다. 주목할 점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의 대부분의 변인에서 연령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에서 연령 차이가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서구와 달리 진보 보수의 차이는 계층보다 연령에 따라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표 4 참조).

연령별 북한에 대한 호의와 비호의 태도를 2(호의/비

www.kci.go.kr

표 2. 성별에 따른 이념적 지형의 차이 단위: M(SD)

	남자(n=237)	여자 (n=263)	*t*
우익 권위주의(RWA)	4.70(1.05)	4.60(.98)	
사회적 지배성(SDO)	4.84(1.14)	4.54(1.05)	3.07 ***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	4.21(1.04)	4.08(1.00)	
북한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27(1.27)	4.27(1.11)	
부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3.80(1.18)	3.56(1.04)	2.40 *
부자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41(1.16)	4.62(1.08)	-2.14 *
기업가에 대한 호의적 태도	4.40(1.12)	4.51(1.00)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4.51(1.07)	4.67(.96)	
삶의 만족도	4.07(1.18)	3.84(1.17)	2.12 *
사회적 동조	4.20(.61)	4.22(.59)	
완고성	3.08(.83)	2.93(.69)	2.32*
보수성	5.11(1.07)	4.76(1.05)	3.73 ***
위험한 세상 지각	4.92(1.03)	5.06(.92)	
경쟁적 세상 지각	3.50(.74)	3.30(.65)	2.91 **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방인 미국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낫다	3.52(1.40)	3.49(1.24)	
국가보안법은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4.03(1.59)	4.05(1.22)	
시위로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4.06(1.69)	3.70(1.53)	2.51 *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대신 학부모의 경제능력이나 자녀의 학업능력에 따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03(1.76)	3.69(1.87)	2.13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한다	4.48(1.49)	4.06(1.33)	3.35 **
독실한 종교활동을 한다	2.98(1.92)	3.56(2.05)	-3.25 **
외국 영화, 음식을 좋아한다	4.00(1.60)	4.30(1.54)	-2.12 *
무신론을 지지한다	3.53(1.81)	2.84(1.75)	4.31**
음주와 취미활동을 즐긴다	4.51(1.56)	3.77(1.79)	4.95 **
결혼하고 자녀를 둘 것이다	6.03(1.20)	5.84(1.44)	
노부모 모시기 등 효도가 중요하다	5.89(1.11)	5.61(1.22)	2.64 *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를 잘 보존해야 한다	5.66(1.14)	5.44(1.17)	2.03 *
멋을 내기 위해 몸에 문신해도 괜찮다	2.95(1.68)	2.99(1.85)	

* $p < .05$, ** $p < .01$, *** $p < .001$

호의) X 2(40대 미만/40대 이상) *ANOVA* 분석해 본 결과, 호의적인 태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비호의적인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여 40대 이상의 세대에서 더욱 비호의적이었다. 즉,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였다, F =7.38, p<.01. 기업가와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를 2(기업가/노동자) X 2(40대 미만/40대 이상) *ANOVA* 분석한 결과, 40대 미만과 이상의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없었으나

www.kci.go.kr

표 3. 연령에 따른 이념적 지형의 차이 단위: M(SD)

	20-39(n=217)	40 이상(n=282)	*t*
우익 권위주의(RWA)	4.32(.99)	4.90(.96)	-6.57 ***
사회적 지배성(SDO)	4.55(1.03)	4.79(1.15)	-2.36 *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	4.10(1.03)	4.17(1.01)	
북한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3.96(1.09)	4.50(1.21)	-5.1 ***
부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3.69(1.12)	3.66(1.12)	
부자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41(1.09)	4.61(1.14)	-2.02 *
기업가에 대한 호의적 태도	4.23(.99)	4.63(1.08)	-4.21 ***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4.63(.96)	4.56(1.06)	
삶의 만족도	4.10(1.09)	3.84(1.24)	2.49 *
사회적 동조	4.05(.58)	4.33(.58)	-5.20 ***
완고성	3.05(.77)	2.96(.76)	
보수성	4.66(1.00)	5.14(1.08)	-5.07 ***
위험한 세상 지각	5.02(1.06)	4.97(.91)	
경쟁적 세상 지각	3.54(.62)	3.30(.74)	3.79 **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방인 미국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낫다	3.35(1.26)	3.62(1.35)	-2.20 *
국가보안법은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3.78(1.24)	4.24(1.49)	-3.69 ***
시위로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3.57(1.53)	4.11(1.65)	-3.74 ***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대신 학부모의 경제능력이나 자녀의 학업능력에 따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78(1.72)	3.91(1.9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한다	3.95(1.39)	4.50(1.41)	-4.34 ***
독실한 종교활동을 한다	2.99(1.84)	3.51(2.10)	-2.9 **
외국 영화, 음식을 좋아한다	4.51(1.52	3.89(1.56)	4.44 ***
무신론을 지지한다	3.59(1.82)	2.84(1.73)	4.64 **
음주와 취미활동을 즐긴다	4.62(1.58)	3.74(1.73)	5.82 ***
결혼하고 자녀를 둘 것이다	5.59(1.49)	6.19(1.13)	-5.14 ***
노부모 모시기 등 효도가 중요하다	5.58(1.28)	5.87(1.08)	-2.91 **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를 잘 보존해야 한다	5.37(1.15)	5.68(1.150	-3.00 **
멋을 내기 위해 몸에 문신해도 괜찮다	3.65(1.71)	2.44(1.63)	8.05 ***

* $p < .05$, ** $p < .01$, *** $p < .001$

기업가에 대해서는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더 호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F=11.42, p <.01.

경제적 수준

응답자가 생각하는 경제 수준에 따라 몇 가지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상류라고 답한 사람들은 부자와 기업가에 대하여 호의적이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외국 영화나 음식을 즐기고, 또한 여가활동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경제수준이 중류 이하고 답한 사람들은 노동자에 호의적이었고, 삶의 만

www.kci.go.kr

표 4.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이념적 지형의 차이 단위: M(SD)

	1. 하 (n=134)	2. 중 (n=276)	3. 상 (n=89)	*F*	*Scheffe*
우익 권위주의(RWA)	4.69(1.03)	4.58(1.02)	4.80(.95)		
사회적 지배성(SDO)	4.62(1.14)	4.65(1.05)	4.69(1.10)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	4.09(1.06)	4.16(1.07)	4.18(.78)		
북한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33(1.26)	4.18(1.17)	4.45(1.13)		
부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3.53(1.06)	3.59(1.09)	4.17(1.16)	10.86***	3>1, 3>2
부자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63(1.18)	4.51(1.11)	4.35(1.03)		
기업가에 대한 호의적 태도	4.42(1.10)	4.40(1.00)	4.72(1.14)	3.27 *	3>2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4.81(1.00)	4.62(.92)	4.19(1.22)	10.69 ***	1>3, 2>3
삶의 만족도	3.41(1.18)	4.03(1.09)	4.54(1.12)	28.20 ***	3>1, 2>1, 3>2
사회적 동조	4.21(.64)	4.19(.58)	4.25(.61)		
완고성	3.06(.75)	3.02(.78)	2.86(.72)		
보수성	4.89(.98)	4.89(1.06)	5.14(1.21)		
위험한 세상 지각	5.06(.91)	5.02(.94)	4.79(1.16)		
경쟁적 세상 지각	3.37(.69)	3.43(.74)	3.40(.61)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방인 미국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낫다	3.48(1.27)	3.48(1.36)	3.57(1.26)		
국가보안법은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3.98(1.41)	4.10(1.36)	3.94(1.54)		
시위로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3.99(1.67)	3.72(1.57)	4.18(1.63)	3.22 *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대신 학부모의 경제능력이나 자녀의 학업능력에 따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89(1.86)	3.76(1.82)	4.07(1.8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한다	4.08(1.49)	4.32(1.34)	4.35(1.57)		
독실한 종교활동을 한다	3.16(2.00)	3.42(2.03)	3.07(1.92)		
외국 영화, 음식을 좋아한다	3.72(1.50)	4.22(1.55)	4.65(1.56)	10.31 ***	3>1, 2>1
무신론을 지지한다	3.37(1.83)	3.09(1.77)	3.12(1.88)		
음주와 취미활동을 즐긴다	4.02(1.70)	4.00(1.74)	4.64(1.63)	4.86 ***	3>2, 3>1
결혼하고 자녀를 둘 것이다	5.89(1.35)	5.91(1.34)	6.07(1.29)		
노부모 모시기 등 효도가 중요하다	5.72(1.17)	5.75(1.11)	5.78(1.35)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를 잘 보존해야 한다	5.64(1.13)	5.53(1.18)	5.45(1.17)		
멋을 내기 위해 몸에 문신해도 괜찮다	3.00(1.76)	2.96(1.78)	2.96(1.78)		

* $p < .05$, ** $p < .01$, *** $p < .001$

족도가 더 낮았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일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구와는 달리 진보 보수의 차이는 계층보다 연령에 따라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설 4가 지지되어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수성이나 사회적 동조, 국가보안법 찬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표 3 참조). 즉, 경제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 기업가들에게 호의적이었고, 노동자들에 대하여 더 비호의적이었으며,

www.kci.go.kr

경찰의 무력사용을 더 당연시하였다. 외국 영화나 음식을 좋아한다는 항목은 어떤 경우(예, 성별)에는 진보적 특성들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또 어떤 경우(예, 경제수준, 결혼 상태)에는 보수적 특성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진보 보수의 이분법이 실제의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안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융통성 있는 견해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결혼 상태

결혼 또는 동거 상태인 사람들이 미혼자에 비하여 더 권위적, 북한에 대하여 비호의적, 사회에 대하여 더 동조적, 더 보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그들은 국가보안법 지지하는 쪽이었으며, 종교 활동에 더 열심이라고

표 5. 결혼 상태에 따른 이념적 지형의 차이 단위: M(SD)

	미혼(n=131)	기혼/동거(n=354)	*t*
우익 권위주의(RWA)	4.25(1.04)	4.78(.98)	-5.18 ***
사회적 지배성(SDO)	4.62(1.09)	4.71(1.13)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	4.13(1.05)	4.14(1.02)	
북한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03(1.08)	4.36(1.24)	-2.71 **
부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3.68(1.15)	3.66(1.10)	
부자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45(1.11)	4.54(1.14)	
기업가에 대한 호의적 태도	4.26(.96)	4.52(1.10)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4.73(.89)	4.54(1.06)	
삶의 만족도	3.95(1.15)	3.97(1.19)	
사회적 동조	4.06(.64)	4.29(.58)	-3.77 ***
완고성	3.11(.73)	2.96(.78)	
보수성	4.67(.99)	5.02(1.10)	-3.24 **
위험한 세상 지각	5.08(.96)	4.99(.98)	
경쟁적 세상 지각	3.58(.63)	3.35(.71)	3.18 **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방인 미국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낫다	3.38(1.23)	3.54(1.36)	
국가보안법은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3.76(1.13)	4.14(1.49)	-2.63 **
시위로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3.47(1.48)	4.03(1.65)	-3.40 **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대신 학부모의 경제능력이나 자녀의 학업능력에 따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82(1.66)	3.86(1.89)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한다	3.79(1.41)	4.44(1.40)	-4.48 ***
독실한 종교활동을 한다	2.95(1.94)	3.44(2.01)	-2.39 *
외국 영화, 음식을 좋아한다	4.56(1.53)	4.00(1.57)	3.49 **
무신론을 지지한다	3.70(1.91)	2.97(1.72)	4.05 ***
음주와 취미활동을 즐긴다	4.83(1.58)	3.88(1.69)	5.62 ***
결혼하고 자녀를 둘 것이다	5.40(1.53)	6.12(1.20)	-5.40 ***
노부모 모시기 등 효도가 중요하다	5.58(1.24)	5.80(1.16)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를 잘 보존해야 한다	5.45(1.06)	5.60(1.20)	
멋을 내기 위해 몸에 문신해도 괜찮다	3.85(1.74)	2.67(1.69)	6.73 ***

* $p < .05$, ** $p < .01$, *** $p < .001$

www.kci.go.kr

답하였다. 그에 비하여 미혼인 사람들은 세상을 더욱 경쟁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외국의 영화나 음식을 더 좋아하였고, 여가 생활을 더 즐겼으며, 문신에 대하여 훨씬 개방적이었다. 이 결과는 기혼자일수록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자에 호의적이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외국 영화나 음악을 더 좋아하였으며, 여가활동을 더 즐긴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하여 고졸 이하의 보다 낮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하여 더 비호의적인 태도를 지녔고, 세상을 더 위험하

표 6. 교육수준에 따른 이념적 지형의 차이 단위: M(SD)

	고졸 이하(n=134)	전문대졸 이상(n=365)	*t*
우익 권위주의(RWA)	4.70(.97)	4.71(1.08)	
사회적 지배성(SDO)	4.64(1.14)	4.64(1.12)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	4.04(1.85)	4.18(1.00)	
북한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44(1.29)	4.20(1.15)	1.98 *
부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3.47(1.02)	3.75(1.14)	-2.48 *
부자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61(1.17)	4.48(1.10)	
기업가에 대한 호의적 태도	4.54(1.09)	4.42(1.05)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4.66(1.03)	4.57(1.01)	
삶의 만족도	3.67(1.22)	4.06(1.15)	-3.26 **
사회적 동조	4.26(.58)	4.19(.60)	
완고성	3.04(.72)	2.99(.78)	
보수성	4.91(1.04)	4.93(1.09)	
위험한 세상 지각	5.14(.97)	4.94(.97)	2.05 *
경쟁적 세상 지각	3.36(.69)	3.42(.71)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방인 미국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낫다	3.57(1.37)	3.47(1.30)	
국가보안법은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4.18(1.39)	3.99(1.41)	
시위로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3.86(1.76)	3.87(1.56)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대신 학부모의 경제능력이나 자녀의 학업능력에 따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82(2.06)	3.87(1.74)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한다	4.23(1.43)	4.27(1.42)	
독실한 종교활동을 한다	3.25(2.02)	3.30(2.00)	
외국 영화, 음식을 좋아한다	3.70(1.65)	4.33(1.52)	-3.99 ***
무신론을 지지한다	3.00(1.83)	3.23(1.80)	
음주와 취미활동을 즐긴다	3.68(1.76)	4.28(1.69)	-3.45 **
결혼하고 자녀를 둘 것이다	6.13(1.22)	5.86(1.47)	2.02 *
노부모 모시기 등 효도가 중요하다	5.81(1.10)	5.71(1.20)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를 잘 보존해야 한다	5.54(1.23)	5.55(1.14)	
멋을 내기 위해 몸에 문신해도 괜찮다	2.78(1.71)	3.04(1.79)	

* $p < .05$, ** $p < .01$, *** $p < .001$

www.kci.go.kr

게 생각하였으며, 결혼하고 자녀를 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하였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 1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념적 정향에 따른 차이

자신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보수적일수록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더 우익 권위주의적이었고, 사회적으로 지배적이었으며, 북한에 대하여 비호의적인

표 7. 이념적 정향(보수/중도/진보)에 따른 이념적 지형의 차이 단위: M(SD)

	1. 진보 (n=198)	2. 중도 (n=109)	3. 보수 n=193)	*F*	*Scheffe*
우익 권위주의(RWA)	4.38(.97)	4.65(1.01)	4.93(1.00)	21.04 ***	3>1, 3>2
사회적 지배성(SDO)	4.57(1.03)	4.57(1.09)	4.87(1.17)	4.18 *	3 >1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	4.22(1.14)	4.12(.94)	4.07(.94)		
북한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3.99(1.16)	4.23(1.14)	4.58(1.17)	12.77 ***	3>1, 3>2
부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3.66(1.05)	3.56(1.11)	3.76(1.18)		
부자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4.60(1.07)	4.58(1.13)	4.41(1.16)		
기업가에 대한 호의적 태도	4.32(1.06)	4.43(.97)	4.61(1.09)	3.77 *	3>1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4.77(1.01)	4.61(.87)	4.40(1.07)	6.60 *	1>3
삶의 만족도	3.97(1.18)	3.90(1.20)	3.96(1.17)		
사회적 동조	4.08(.62)	4.17(.57)	4.37(.55)	11.68 ***	3>1, 3>2
완고성	2.94(.81)	3.00(.67)	3.06(.76)		
보수성	4.74(1.05)	4.80(.99)	5.20(1.09)	10.35 ***	3>1, 3>2
위험한 세상 지각	4.93(1.05)	5.12(.84)	4.99(.980		
경쟁적 세상 지각	3.36(.71)	3.42(.63)	3.44(.74)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방인 미국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낫다	3.42(1.32)	3.24(1.18)	3.73(1.36)	5.41 *	3>2
국가보안법은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3.83(1.42)	4.02(1.28)	4.26(1.42)	4.69 *	3>1
시위로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3.54(1.54)	3.86(1.53)	4.21(1.67)	8.61 ***	3>1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대신 학부모의 경제능력이나 자녀의 학업능력에 따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78(1.85)	3.61(1.77)	4.06(18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한다	4.13(1.44)	4.17(1.15)	4.45(1.53)		
독실한 종교활동을 한다	3.27(1.97	3.33(2.11)	3.28(2.00)		
외국 영화, 음식을 좋아한다	4.29(1.54)	4.04(1.55)	4.09(1.62)		
무신론을 지지한다	3.09(1.78)	3.30(1.81)	3.17(1.83)		
음주와 취미활동을 즐긴다	4.29(1.61)	4.20(1.76)	3.90(1.80)		
결혼하고 자녀를 둘 것이다	5.82(1.45)	5.91(1.29)	6.06(1.22)		
노부모 모시기 등 효도가 중요하다	5.56(1.34)	5.66(1.12)	5.97(.98)	6.20 *	3>1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를 잘 보존해야 한다	5.39(1.22)	5.41(1.12)	5.78(1.09)	6.32 *	3>1, 3>2
멋을 내기 위해 몸에 문신해도 괜찮다	3.24(1.76)	3.11(1.82)	2.62(1.70)	6.60 *	1>3

* $p < .05$, ** $p < .01$, *** $p < .001$

www.kci.go.kr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기업가에 대하여는 호의적인 반면 노동자에 대하여는 비호의적이었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으로 더 동조적이었고, 전통수호적이었으며, 문신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 다만, 부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진보-보수의 성향 차이가 없었다.

자신의 성향별 북한에 대한 태도를 2(호의/비호의) X 3(진보/중도/보수) *ANOVA* 분석해 본 결과, 호의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비호의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일수록 더욱 그 강도가 커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였다, F = 7.36, p<.01. 또한 기업가와 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도 확연히 존재하여 2(기업가/노동자) X 3 (진보/중도/보수) *ANOVA* 분석 결과,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기업가에 호의적이었고,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노동자에 호의적이었고,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은 그 중간이었다. 역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F=9.17, p<.01.

이상의 결과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분야별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부자에 대한 태도나 완고성,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국가보안법이나 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력 사용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태도의 경우 비호의적인 태도에서는 차이가 났지만, 호의적인 태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고의 틀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북한 동포는 좋아하지만 북한 정권은 싫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 2

편견, 자민족 중심주의, 집단 간 적대감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진행되어왔다. 하나는 편견과 자민족 중심주의를 집단 현상으로 간주하고 집단 간 역동과 집단 간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고(Altmeyer, 1996), 다른 하나는 편견을 개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집단 간에서 자민족 중심적 태도를 가지려는 경향성에서의 개인차로 설명하려는 것이다(Sidanius & Pratto, 1999). 개인차이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한 외집단이나 소수집단에 대하여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쉬운 개인의 성격이나 신념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차원들이 경험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하나는 Aromo 등(1950)이 처음 주장하였고, 나중에 이를 발전시킨 Altmeyer(1996)가 제안한 우익 권위주의(Right Wing Authoritarianism: RWA) 척도로 전통주의, 권위적 공격성, 권위적 복종 등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Sidanius와 Pratto(1999)가 제안한 집단 간 관계에서의 일반적 태도 지향으로서, 평등한 관계나 위계적 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하는 것으로, 자신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상위에 군림하기를 바라는 정도인 사회적 지배 지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으로 측정되어 왔다(Adorno, Frenkel-Brubswick, Levinson, & Sanford, 1950; Altmeyer, 1996; Sidanius & Pratto, 1999).

RWA와 SDO는 정치적, 이념적, 집단 간 현상을 폭넓게 설명해 왔으며, 국수주의적 자민족 중심주의와 일반화된 편견을 잘 예언해 왔지만, 이들 두 척도들은 비교적 서로 독립적이거나 상호간에 낮은 상관만을 보여, 이들 두 척도들은 상이한 두 가지 종류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재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Saucier, 2000). 그렇다면, RWA와 SDO 척도는 모두 성격보다는 사회적 태도이거나 이념적 신념을 재는 것으로 사회정치적 태도와 사회문화적 가치의 구조가 대략 하나는 RWA와 다른 하나는 SDO에 대응되는 직교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RWA와 유사한 차원은 한 쪽 극단은 사회적 보수주의, 전통주의, 또는 집단주의를 다른 극단은 개인적 자유, 개방성, 또는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SDO와 유사한 차원은 한 극단은 경제적 보수주의, 불평등과 권력 거리에 대한 생각을, 다른 극단은 사회복지, 사회적 배려, 평등주의, 보편주의, 또는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Duckitt, 2001).

Duckitt, Wagner, Pleiss, 및 Birum(2002)은 이러한 개념적 틀은 두 차원들이 대립적인 동기적 목표들의 짝인 RWA와 SDO라는 사회적 태도 차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높은 RWA는 위험하고 위협적인 세계관이 활성화되면 사회적 통제와 안전이라는 동기적 목표로 나타나고, 낮은 RWA는 정반대의 동기 목표인

www.kci.go.kr

안전하고, 안정된 세계관이 활성화된 개인적 자유와 자율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소인적 성격 차원은 사회적 동조 대 자율이다. 사회적 동조 소인이 높을수록,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의 위협을 빨리 지각하고 사회적 세계를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사회적 동조가 높으면, 사회적 통제, 안전, 개인에게 명료한 안정의 동기적 목표를 만들어 직접 권위주의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SDO는 완고함(tough mindedness)과 부드러움(tender mindedness)의 성격차원들과 연결된다. 완고한 성격은 이 세상을 강자만 살고 약자는 죽는 무자비한 경쟁적 정글로 보고, 권력, 지배, 남들보다 우월한 동기적 목표를 활성화시켜, 높은 SDO를 보이게 된다. 반면에 부드러운 성격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세계로 보아, 이타적 사회적 배려라는 동기목표가 명료해지고, 낮은 SDO로 나타난다. 위에서와 같은 논리에 따라 성격, 세계관, 이념적 태도,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 간의 인과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림2에서 보듯 이 모형에서는 RWA와 SDO라는 두 이념적 태도 차원들은 각각 대응되는 성격과 세계관으로 결정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두 성격 차원, 두 세계관 차원, 그리고 두 이념적 태도 차원 들 간에도 인과 관계를 상정한다. 우선, 완고함은 사회적으로 일탈되고,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다 사회적으로 동조적인 사람은 완고한 정도가 덜 할 것이다. 완고하거나 경쟁적 세계관에서의 높은 반응 보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전통적이지 않으므로 사회적 동조로부터 완고함으로의 인과 경로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Duckitt & others, 2002).

사회적 세계를 무자비한 경쟁적 정글로 본다면, 불가피하게 세상을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볼 것이다. 반대로 사회적 세계를 경쟁적으로 본다 해도 위험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쟁적 세계관에서 위험한 세상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일한 좌(낮은 RWA와 낮은 SDO) 대 우(높은 RWA와 높은 SDO) 차원상 정치가 조직화된, 적어도 보다 이념적인 사회에서는 RWA와 SDO가 서로 정적, 상호적, 인과적 영향을 가져, RWA와 SDO에서의 인지적 일관성의 압력을 받는다. RWA과 SDO간 상관은 미국보다 유럽이나 뉴질랜드가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이들 나라에서의 강한 노조 운동으로 더 큰 이념적 정치조직이 형성된 때문이고, 젊은 층보다 나이 든 층에서 더 강한 상관이 나온 것은 사춘기 이후에나 정치적인 사회화가 일어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RWA와 SDO 상호간의 강도는 특정한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어떤 이념이 더 지배적이냐에 달렸다. 권위주의-보수주의가 일찍이 사회화되고 더 강화되었다면, RWA와 SDO의 이념적 일관성 압력은 RWA가 SDO로의 영향이 그 반대보다 더 강하게 된다. 따라서 RWA와 SDO 사이의 영향의 방향과 존재는 그 사회에서 어떤 이념적인 정치가 지배적인지의 맥락에 따른다(Duckitt & others, 2002).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진보는 낮은 RWA와 낮은 SDO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반면에 보수는 높은 RWA와 높은 SDO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개념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RWA와 SDO 요인 중 어떤 요인이 한국 성인들의 보수와 진보 성향을 더욱 잘 예언해 주는지, 또는 어느 분야에 더욱 적용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침으로써 RWA와 SDO의 유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 1이 나열적 자료해석에 치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정교화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응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Duckitt 등(2002)의 결과가 한국에서도 반복되는 일반적인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2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위에서 본 인과모형을 상정하고, 선행연구들이 내외 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RWA와 SDO가 모두 친 내집단적이고 반 외집단적인 태도를 증가시킨 것처럼 특정한 태도대상에 대한 예언도 가능한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즉, Duckitt 등이 (2002) 본 내외집단들에 대한 태도 대신에 북한에 대한 태도, 부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기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RWA와 SDO가 예언하는 방향과 그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다소 진보적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의 인구학적인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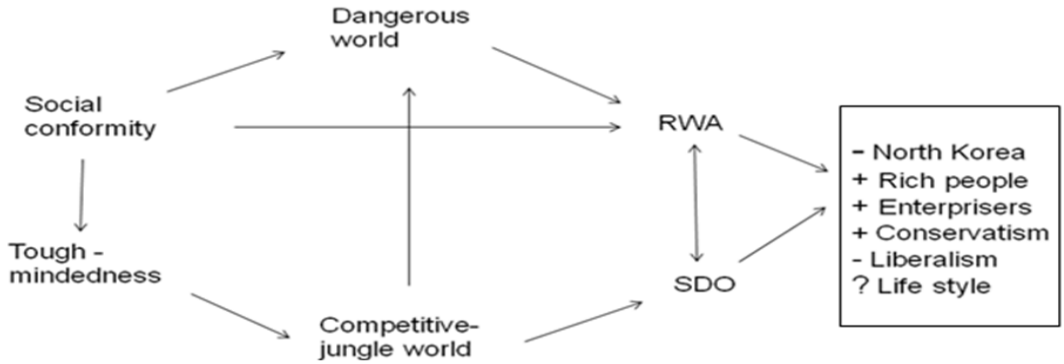


그림 2. 우익 권위주의(RWA)와 사회적 지배성(SDO)의 두 이념적 태도 차원들과 성격과 사회적 세계관, 북한, 부자, 기업인에 대한 태도들 간의 인과적 모형(+, -는 정부적 상관을 가정)

가설 1: RWA는 정치적, 사회적 분야와 SDO는 경제적 분야와 더 관련을 가질 것이며, RWA는 사회적 동조를, SDO는 경쟁적 세계관을 잘 예언할 것이다.

가설 2: 한국의 이념적 지향성이 강화된 점으로 보아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보인 것처럼 RWA로부터 SDO로의 경로 예언을 보이고, RWA가 SDO보다 더 보수성을 예언할 것이다.

가설 3: 상호의존적인 자아를 보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RWA와 SDO를 보일 것이고, 낮은 경쟁적 세계관을 가질 것이다.

결 과

분석 2에서 사용한 자료는 분석 1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 중에서 인과모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인과모형의 검증

사회적 이슈에 관련한 분석에서 RWA와 SDO 간에는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 상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RWA는 북한, 기업인, 부자에 대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SDO는 RWA보다 더 높은 상관으로 북한, 기업인, 그리고 부자에 대한 연결을 나타냈다. 응답자 중 행복하다고 지각한 사람들이 부자와 기업인에 대하여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보수주의와 RWA, 그리고 경제적 보수주의와 SDO가 특히 높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왔다. 예상대로 사회적 동조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완고성은 덜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회적 동조가 높을수록 SDO 보다는 RWA를 더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동조성이 높은 응답자들은 기업가들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완고성이 높은 사람들은 RWA와는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경쟁적 세계관과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동조성에서처럼 완고성은 SDO와는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완고성과 경쟁적 세계관 사이에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경쟁적 세계관을 가질수록 더 높은 SDO를 보였으나, 경쟁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RWA와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RWA와 SDO가 높은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외국 영화나 외국 음식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부자, 기업인, 사회질서의 유지, 전통적 가치의 중시 등 보수적인 성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보수성은 연령이 더 높을수록 더 지지되었는데, 젊은 층에서의 비종교성, 외국 문물 선호가 두드러졌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보-보수의 경향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부자, 기업인, 외국 문물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으나, 예상과 달리 경제적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결혼 여부도 영향을 주었는데, 기혼자들이 RWA, 사회적 동조, 사회질서 유지를 더 강조하였고, 미혼자들은 경쟁적 세계관, 외국문물 선호, 비종교성을 더 강조하였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일수록 외국 문물에 대한 선

www.kci.go.kr

표 8. 이념적 지형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Cronbach's alph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RWA	(.83)													
2. SDO	.34**	(.74)												
3. S_CON	.32**	.00	(.65)											
4. T_MIND	-.14**	.08	-.34**	(.92)										
5. DAN_WO	.29**	.12**	-.04	.00	(.83)									
6. COMPE	.07	.43**	-.10*	-.44**	.17**	(.80)								
7. CONS	.80**	.20**	.32**	-.19**	.22**	-.03	(.70)							
8. NORTH_P	-.17**	-.16**	.05	-.11*	-.14**	-.22**	.01	(.77)						
9. NORTH_N	.43**	.29*	.11*	.01	.21**	.13**	.18**	-.51**	(.63)					
10. RICH_P	.25**	.38**	.06	-.03	-.03	.13**	.15**	-.04	.14**	(.74)				
11. RICH_N	.02	-.15**	.00	-.08	.11*	-.17**	.05	.17**	.01	-.40**	(.76)			
12. ENT_P	.42**	.33**	.17**	-.14**	.10*	.02	.27**	-.10*	.29**	.26**	.01	(.76)		
13. ENT_N	-.06	-.10*	-.07	-.05	.15**	.01	-.01	.19**	-.11*	-.24**	.36**	-.09	(.76)	
14. LIFE_SA	.08	.06	.05	-.13**	-.09	-.01	.10*	.12*	-.04	.22**	-.11*	.13**	-.13**	(.85)

주. RWA = 우익 권위주의; SDO = 사회적 지배성; S_CON = 사회적 동조; T_MIND = 완고성; DAN_WO = 위험한 세상 지각; COMPE = 경쟁적 세상 지각; CONS = 사회적 보수성; NORTH_P =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 NORTH_N = 북한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RICH_P = 부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RICH_N = 부자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ENT_P = 기업가에 대한 호의적 태도; ENT_N =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LIFE_SA = 삶의 만족도
* $p < .05$, ** $p < .01$, *** $p < .001$

호, 문신을 지지하였고, 더 경쟁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연결되었다. 자신을 진보-보수 중 어디로 정향화하는지도 흥미로운 결과를 내었다. 보수적으로 자리매김을 한 응답자들은 더 RWA, SDO를 선호하였고, 기업가, 사회질서 유지, 노부모 봉양, 전통적 문화의 유지에 관심을 보였다. 보수적인 응답자들은 또, 국가 보안법,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였고, 반대로 진보적인 응답자들은 반문화적 가치를 더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사회적 동조와 RWA를 제외한 모든 경로들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동조와 위험한 세계관 모두 RWA와 SDO에 모두 유의한 경로를 보였으나, 사회적 동조와 위험한 세계관 사이에는 유의한 경로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동조는 완고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경쟁적 세계관은 위험한 세계관과 유의한 정적 경로로 나타났다. RWA-SDO 사이에는 약한 정적 경로로 나왔지만 각각 북한, 기업가, 부자와는 유의한 경로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관련하여 SDO가 직접적인 정적인 경로를 유지하였으나, RWA는 그렇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방정식의 결과는 GFI, AGFI, NFI, CFI, RMSEA 등 적합도 지표상 모두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Duckitt(2002)의 모형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선행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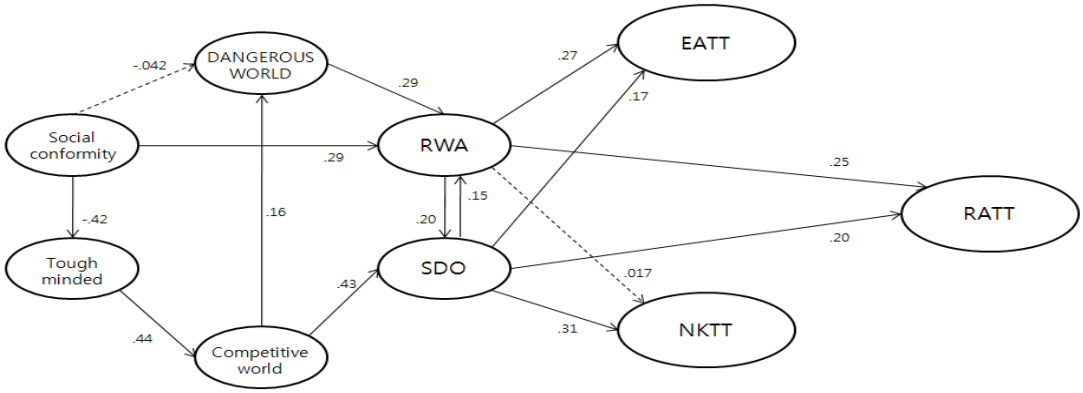


그림 3. 두 가지 성격들(RWA, SDO), 두 가지 세계관(위험한 세계관, 경쟁적 세계관), 세 가지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북한, 부자, 기업인)들 간의 표준화된 최대우도계수들(standardized maximum likelihood coefficients).
주. 실선과 화살표는 유의미한 경로 방향을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표시. 우익 권위주의(RWA = right-wing authoritarianism); 사회적 지배성(SDO=social dominance orientation); 북한에 대한 태도(NKTT = North Korea attitude); 기업인에 대한 태도(EATT = enterprisers attitude); 부자에 대한 태도(RATT = rich people attitude).

다. 차이를 보인 것은 선행 연구들이 미국, 뉴질랜드 등 개인주의적 문화권을 주로 다룬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을 다뤄 RWA와 SDO간에 약하지만 정적인 상관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 대신에 북한, 기업인, 부자 등 사회 계층을 다루어 성격 변인과 진보-보수의 지향성을 탐색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경제적 수준, 교육적 수준, 남녀의 성별, 종교 유무 등이 진보-보수의 차이를 가져 온 상황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RWA, SDO, 경쟁적 세계관, 사회적 동조성 등의 개념을 재기 위하여 제한된 측정치를 한국 실정에 맞는지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적 세계관을 잰 문항 중 가장 높은 부하를 보인 문항들이 타인에 대한 냉소적인 점을 부각시킨 것인데, 이것이 SDO와의 낮은 관련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진보-보수의 심리적 기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원되기는 했으나, 실험이나 장기적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인과성은 설명할 수 없었던 점도 이 연구의 큰 제한 점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에 포함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폭넓은 표집을 대상으로 한 진보-보수의 심리적 기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면 보다 확실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념적 지형은 변화가 있지만 특정한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서 그 변화의 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어떠한 모형이 각 변인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분석 1에서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블루칼라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지, 또 그것은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그리고 사회 문화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이러한 이념성향은 계층에 따른 차이가 분명한 서구의 경우와는 확연히 대비되어 계급이나 경제적 가치의 배분에 따라 이념적 갈등이 나타나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이념성향이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은 남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1에서는 검증했던 가설 중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일수록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어 여성이 더 진보적이었으며, 기혼자들이 더 보수적이었다.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분야별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가설 3은 전반적으로 지지되는 쪽이

www.kci.go.kr

었다. 끝으로 서구와 달리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계층보다는 연령에 따라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설 3은 40대 미만과 40대 이상의 두 집단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가장 분명히 지지되었다.

분석 2에서는 RWA와 SDO가 모두 친 내집단적이고 반 외집단적인 태도를 증가시킨 것처럼 특정한 태도대상에 대한 예언도 가능한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즉, Duckitt 등이 (2002) 본 내외집단들에 대한 태도 대신에 북한에 대한 태도, 부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기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RWA와 SDO가 예언하는 방향과 그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응답자들의 인구학적인 변인들이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RWA는 정치적, 사회적 분야와 SDO는 경제적 분야와 더 관련을 가질 것이며, RWA는 사회적 동조를, SDO는 경쟁적 세계관을 잘 예언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잘 지지되는 편이었다. 즉, RWA와 사회적 동조성, 위험한 세상 지각, 사회적 보수성 및 북한에 대한 태도와는 높은 상관을 지닌 반면에 SDO는 경쟁적 세계 지각, 부자에 대한 태도 및 기업가와 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높을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념적 지향성이 강화된 점으로 보아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보인 것처럼 RWA로부터 SDO로의 경로 예언을 보이고, RWA가 SDO보다 더 보수성을 예언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어 RWA로부터 SDO로의 경로 예언을 더 잘 보였으며, RWA와 사회적 보수성과의 상관이 SDO와 사회적 보수성과의 상관보다 3배나 높았다(.80 대 .20).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사회적 동조와 RWA를 제외한 모든 경로들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동조와 위험한 세계관 모두 RWA와 SDO에 모두 유의한 경로를 보였으나, 사회적 동조와 위험한 세계관 사이에는 유의한 경로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동조는 완고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경쟁적 세계관은 위험한 세계관과 유의한 정적 경로로 나타났다. RWA-SDO 사이에는 약한 정적 경로로 나왔지만 각각 북한, 기업가, 부자와는 유의한 경로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관련하여 SDO가 직접적인 정적인 경로를 유지하였으나, RWA는 그렇지 못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은 독립적이기보다 상호의존적인 자아성향을 보인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처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RWA와 SDO를 보이고 낮은 경쟁적 세계관을 보여 가설 3을 지지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방정식의 결과는 GFI, AGFI, NFI, CFI, RMSEA 등 적합도 지표상 모두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Duckitt(2002)의 모형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선행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를 보인 것은 선행 연구들이 미국, 뉴질랜드 등 개인주의적 문화권을 주로 다룬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을 다뤄 RWA와 SDO간에 약하지만 정적인 상관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 대신에 북한, 기업인, 부자 등 사회 계층을 다루어 성격 변인과 진보-보수의 지향성을 탐색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경제적 수준, 교육적 수준, 남녀의 성별, 종교 유무 등이 진보-보수의 차이를 가져 온 상황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40대 이상의 높은 연령대에서는 젊은 연령대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의 이념성향은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 서구는 이념성향이 계급이나 계층에 따라 차이 남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또한 분야별, 사안별로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점들도 나왔다. 이는 서로 다른 입장의 대립은 보수- 진보라는 이념이나 태도 또는 성향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의견의 대립이며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인식 간의 대립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대북관계,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대북지원문제, 부자에 대한 태도, 근로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갖는다고 하여 그것을 보수나 진보라고 규정하여 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친미반북을 보수라 하고 반미친북이나 친중을 진보라 할 수 없으며,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진보라 하며 반대한다고 보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지 여부는 차이가 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식이었다. 결국 한국에서의 이념적 지형은 시대와 상황, 특정 이슈에 따라

www.kci.go.kr

대단히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RWA와 SDO을 중심으로 한 이중과정 모형으로 잘 예언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시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는 RWA, SDO, 경쟁적 세계관, 사회적 동조성 등의 개념을 재기 위하여 제한된 측정치를 한국 실정에 맞는지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적 세계관을 잰 문항 중 가장 높은 부하를 보인 문항들이 타인에 대한 냉소적인 점을 부각시킨 것인데, 이것이 SDO와의 낮은 관련성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진보-보수의 심리적 기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원되기는 했으나, 실험이나 장기적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인과성은 설명할 수 없었던 점도 이 연구의 큰 제한 점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에 포함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폭넓은 표집을 대상으로 한 진보-보수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면 보다 확실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원택(2005). 한국의 이념갈등과 보수·진보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김명소, 임지영(2002).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용인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김태현, 남궁곤(2001). 여론과 대북정책: 한국인의 대북정책과 신념구조와 결정요인. 한국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부산: 한국 정치학회).

노병만(2007). 21세기 초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 대한정치학회보, 14(3), 143-162.

마인섭(2002). 한국의 이념지형과 민주주의. *New Asia, 9(3),* 13-31.

위클리경향(2009. 5. 7). 한국 이념지형지도 수시로 변덕. hou@kyunghyang.com

장훈(2003). 한국의 정치적 대표: 유권자-국회의원의 이념적 대표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1), 71-93.

조선일보(2006. 3.6). 정치 사회 성향 보수로 C턴, 경제는 진보로.

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 83-102.

한겨레(2008.1.1). 경제엔 보수 사회엔 진보 좌->우로 약간 이동.

홍기원(2008). 대학생들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있어서 문화적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37-261.

Adorno, T. 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ltmeyer, R. A,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Manitoba, Canada: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Altemeyer, R. A.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lock, J., & Block, J. H. (2006). Nursery school personality and political orientation two decades late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734-749.

Bobbio, N. (1996). *Left and right.* Cambridge, United Kingdom: Polity Press.

Bobo, L., & Licari, F. (1989). Educ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Testing the effects of cognitive sophistication and target group affect. *Public Opinion Quarterly, 53,* 285-308.

Carney, D., Jost, J. T., & Gosling, S. D. (in press). The secret lives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Personality profiles, interaction styles, and the things they leave behind. *Political Psychology.*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D'Andrade, R. (1992). Schemas and motivation. In R. D'Andrade & C. Strauss (Ed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 (pp.23-44).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ckitt, J. (2001). A dual-process

www.kci.go.kr

cognitive-motivational theory of ideology and prejudice. In M.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3, pp. 41-113). San Diego, CA: Academic Press.

Duckitt, J. Wagner, C., Plessis, I, & Birum, I. (2002). The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prejudice: Testing a dual process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75-93.

Elster, J. (1982). Belief, bias, and ideology. In M. Hollis & S. Lukes (Eds.), *Rationality and relativism* (pp. 123-148). Oxford, United Kingdom: Basil Blackwell.

Gabriel, S., & Gardner, W. L. (1999). Are there "his" and "hers" types of inter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collective versus relational interdependence for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42-655

Greenberg, J., & Jonas, E. (2003). Psychological motives and political orientation-The left, the right, and the rigid: Comment on Jost et al. (2003). *Psychological Bulletin, 129*, 376-382.

Gerring, J.(1997). Ideology: A definitional analysi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0*, 957-994.

Jost, J.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 651-670.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 881-919.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2003a). Exceptions that prove the rule: Using a theory of motivated social cognition to account for ideological incongruities and political anomalies. *Psychological Bulletin, 129*, 383-393.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2003b).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260-265.

Jost, J. T., Nosek, B. A., & Gosling, S. D. (2008). Ideology: Its resour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126-136.

Jost, J. T., & Sidanius, J. (2004). Political psychology: An introduction In J. T. Jost & J. Sidanius (Eds.), *Political Psychology: Key readings* (pp. 1-17). New York: Psychology Press/Taylor & Farancis.

Kerlinger, F. N. (1984). *Liberalism and conservatism: The nature and structure of social attitudes*. Hillsdale, N. J.: Erblaum.

Klugel, J. R., & Smith, E. R. (1986). *Beliefs about inequaility: Americans' view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New York: Adline De Gruyter.

Knight, K. (2006). Transformations of the concept of id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 619-626.

Larsen, K. S., Groberg, D. H., & Simmons, D.D. (1993). Authoritarianism, perspectives on the environment, and work values among social science students in former socialist and western societi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1*, 251-264.

Lederer, G., & Kindervater, A. (1995). Internationale Vergleich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G. Lederer & P. Schmidt (Eds.), *Authoritarismus und Gesellschaft-Trendanalysen undvergleichende Jugenduntersuchungen 1945-1993*. Opladen, Germany: Leske+Budrich.

MacKinnon, C. (1989).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rland, S., Ageyev, V. S., & Abalakina-Paap, M.

www.kci.go.kr

A. (1992). Authoritarianism in former Soviet Un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004-1010.

McFarland, S., Ageyev, V. S., & Djintcharadze, N. (1996). Russian authoritarianism two years after commu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210-217.

Nosekk, B. A., Smyth, F. L., Hansen, J. J., Devos, T., Lindner, N. M., Ranganath, K. A. (2007). Pervasiveness and correlates of implicit attitudes and stereotyp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 36-88.

Saucier, G. (2000). Isms and the structure of soci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66-385.

Schwartz, S. (1992). Universals in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nces and emp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il. 25, pp. 1-6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Strauss, C. (1992). Models and motives. In R. D'Andrade & C. Strauss (Ed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pp. 1-20).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Tetlock, P. E. (1989). Structure and function in political belief systems.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p. 129-151). Hillsdale, NJ: Erlbaum.

Thorisdottir, H., Jost, J. T., Liviatan, I., & Shrout, P. (2007). Psychological needs and values underlying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 Cross-national evidence from Eastern and Western Europe. *Public Opinion Quarterly, 71,* 175-203.

Tomkins, S. S. (1963). Left and right: A basic dimension of ideology and personality. In R. W. White (Ed.), *The study of lives* (pp. 388-411). Chicago: Atherton.

Williams, J, E., & Best, D. L. (1990). *Measuring sex-stereotypes: A thirty nation study*. Beverly Hills CA: Sage.

Wilson, G. D. (1968). Authoritarianism or conservatism? *Papers in Psychology, 2*, 58.

Wilson, G. D. (1973). A dynamic theory of conservatism. In G. D. Wilson (Ed.),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pp.257-265). London: Academic Press.

Wood, W., Christen, P. N., Hebel, M., & Rothgerber, H. (1997). Conformity to sex-typed norms, affect, and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23-536.

www.kci.go.kr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0, Vol. 24, No. 2, 1~25

A Study on the Relations of Ideological Topology and Psychological Bases in South Korean Adults

Kiwon Hong Jongtaek Lee
Hoseo University Dongyang Mirae University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fill the lack of psychological exploration on the study of ideological topology in Korean adults and the possible psychological bases of such topology. Differential demographic effects like economic status, educational levels, gender, and age would related to liberal-conservative ideology in Korean setting compared to Western culture were examined in analysis 1. Psychological bases related on the ideological topology were probed in the analysis 2. To test the generality of the theoretical model relating personality and world views to ideological trends (conservative-liberal), prejudice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rich people, and enterprisers), and life style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latent variables in a sample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living in Cheonan and Seoul. 500 persons, 238 (47.6%) males and 262 (52.4%) females with an average age of 35 years old completed a survey questionnaire based on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social conformity, life styl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world views. Different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and the goodness of fit statistics and path coefficient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interpreted. More conservatives evidenced in lower education, higher economics, and more liberal attitudes in females than males and married than not-married. But differential ideological configurations effects were revealed according to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domains. However, there was age effect, which is not for granted in Western society, which suggest there might be a cultural difference between Western countries and Korea. Generally, SEM model proposed by Duckitt, Birum, Wanger, and Plessic(2002) was supported, which means ideological trends and related social beliefs can be explained by the right wing authoritarianism (RWA) and social dominance (SDO), which in turn connected with social conformity, dangerous world view, tough mindedness, competitive jungle world. Especially, RWA and SDO had positive, reciprocal, and causal impacts each other, path prediction from RWA to SDO than vice verse though, which suggest strong ideological orientations were established in Korea like Europe and America. More closer link political and social domains to RWA while economic domains to SDO and more strong relation between social confirmity and RWA, competitive world view and SDO. RWA than SDO can predict more conservatism but lesser RWA and SDO in females than males since more competitive world view and dangerous world view are prevalent in males than females. Finally,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present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ideological topology, liberal-conserv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ight 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social conformity, dangerous world view, tough mindedness, competitive jungle world.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2월 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4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5월 6일

www.kci.go.kr

www.kci.go.kr